

가톨릭 사제의 제의(祭衣)착용에 나타난 의미 연구

여승화[†] · 이상은^{*}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강사[†] · 건국대학교 명예교수^{*}

A study on the meaning of the Catholic priests' casula wear

Seungwha Yeo[†] · Sang-Eun Lee^{*}

Lecturer, Dept. of Continuing Education Center, Konkuk University[†]

Honorary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Konkuk University^{*}

(2019. 7. 12 접수; 2019. 8. 26 수정; 2019. 11. 21 채택)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casula wearing by Catholic priests. By understanding various applications of the priests' wearing of casula, we can understand the meaning of wearing casula, situational judgment, and the role and status of priests. Ultimately, the Catholic symbol and meaning of the casula can be f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basic setting of the casula, the setting according to the status of the priest, and the origin of the casula. Second, this study to understand the design of the pattern shown in the casula. The patterns containing the symbol and the liturgical period were examined, and the method of making the pattern design was considered. Third, various symbols appearing in examples of priests' rituals were considered and analyzed. The method of this study was to utilize various pictures acquired during interviews with priests and nuns and to perform content verification.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aspects of form, color, and pattern were shown through the wearing of casula during various situations. First, the morphological symbols appearing in the rituals are the simplified casula that hangs on the stola on the top of the alb and the symbols of the form according to the priest's status. In the liturgy, the casula is put on the outermost side as for basic wearing, but in the case of celebration or the attendance at celebrations other than the liturgy, it is the same as simplified wearing. Second, in terms of the symbol and color, the basic colored casulas were worn to match the time and character of the liturgy, and in addition, on the priests' ordination ceremony and celebration day the priests wore white casulas. Third, the symbol of the pattern used in the casula was a Catholic pattern according to the period in the basic casula wearing of the liturgy. In addition, the patterns were produced by combining the patterns and meaning of the priests that were used in the casulas of the priests' ordination ceremony. The design of the pattern used in the beatification mass casula and the Mass of Peace casula during the Pope's visit to Korea in 2014 used the same motif as the Pope's design, but the simplified pattern was produced for the casula of the Cardinal and bishops. Through this,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the situation where a morphological symbol appears due to a distinction according to the role and status of the priest. This shows that the symbols that appear are the cross and should also consider the complexly, shape, color, and pattern.

Key Words: Catholic(가톨릭), liturgy(전례), casula(제의), priest(신부), priest ordination(사제서품)

[†]Corresponding author ; Seungwha Yeo

Tel. 82-01-2582-8284

E-mail : clothyeo@nate.com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가톨릭 사제복 중 제의(祭衣)는 사제들이 평상시 착용하는 의복이 아닌, 가톨릭 종교 예식에서 가장 곁에 착용하는 의복이며, 가톨릭 종교 의식의 의미와 상징을 담고 있다.

모든 종교는 의례적인 예식 행위를 통하여 종교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달성시켜준다. 종교에서 사회적 측면의 의례는 관습적 절차를 부여한다는 것 이외에, 심리적 측면에서는 의례를 통하여 희망과 신념을 확인하고 성스러움에 위안을 받으며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는 긍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Richard, 2016). 그러나 막연하게 모두가 보이지 않는 의례 자체에만 몰두하고 집중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여기에서 '복식(服飾)'이라는 시각적 자극이 예식 행위의 집중도를 높여줄 수 있는 부수적이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것은 이 시각적 자극에는 예식의 의미를 담은 상징적 표현과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제의 디자인을 이해하면 그와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들을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제들의 제의 착용을 통해 나타난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제의를 비롯한 전례복의 종류와 상징적 의미를 고찰한 연구(김정희, 1981; 김희선, 1993) 등은 이미 진행된 바 있다. 이외에 관찰자 입장에서 사제복의 이미지를 분석한 연구(김광경 외, 1999)가 있으며, 외국의 가톨릭 전례복 디자인 현황이나 보급 실태에 관한 연구(양리나, 1994), 전례복에 사용된 문양에 관하여 진행된 연구(한경애, 1990) 등이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통하여서도 사제복이 다양한 종류와 의미를 담고 있는 의복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접하는 사제들의 제의 착용 모습에서는 다양한 응용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이해하면 제의를 착용한 사제들의 상황, 전례 혹은 행사의 성격과 의미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제의에 담긴 가톨릭적 상징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제의의 기본

착장 외에도 다양한 상황에서의 착장과 제의 디자인 제작 단계의 문양 전개 등의 응용을 이해할 필요성을 가지게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전례복 중 제의의 기본 착용순서와 사제들의 신분에 따른 전례복, 제의의 기원을 고찰한다. 둘째, 제의에 사용되는 문양디자인의 상징과 제작에 대하여 고찰한다. 셋째, 사제들의 상황에 따른 제의의 착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착장 응용에 따라 나타나는 제의의 상징과 의미를 분석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가톨릭 사제들이 전례 중 착용하게 되는 전례복 중 상징적 문양과 상징 의미를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의복인 제의(祭衣)의 착장에 나타난 의미에 관하여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 범위는 가톨릭의 전례복의 착용순서를 통하여 기본 착장, 신분에 따른 착장, 제의의 기원을 고찰하고 제의에 사용되는 문양의 상징과 제작방법, 또한 사제들의 다양한 행사와 상황에서의 제의의 착장을 살펴본다.

연구방법은 문헌 연구로 선행 연구, 복식 및 종교, 예술, 가톨릭 관련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가톨릭 사제 두 분과 '스승예수의 제자 수녀회' 본원의 수녀 10여분을 인터뷰하는 인터뷰법 및 문헌 사진 자료, '스승 예수 제자 수녀회' 제의 제작 자료, 가톨릭도서관 소장 디지털 자료, 인터넷 자료 등을 분석하여 실시하였다.

II. 가톨릭 전례복

1. 전례복(典禮服) 기본 착장

제의는 사제들이 전례 시 갖추어 착용하는 전례복 중 가장 곁옷에 착용하는 의복이다. 따라서 제의의 기본 착장을 이해하기 위하여 전례복의 착용 순서를 알아보았다(천주교 수원교구 복음화국, 2016).

사제들의 평상복인 수단(Soutane)위에 개두포(Amictus)를 제일 먼저 어깨에 둘러 수단의 카라

〈표 1〉 전례복의 착용 순서

수단①	개두포②	장백의③	영대④	띠⑤	제의⑥
					

(출처 : 합당한 준비 능동적 참여 (p.134) 천주교 수원교구 복음화국, 2016. 수원; 하상 <https://blog.naver.com/cswhite/220646280195> 자료검색일: 2019. 5.13)
 합당한 준비 능동적 참여 (p.135) 천주교 수원교구복음화국, 2016. 수원; 하상
 합당한 준비 능동적 참여 (p.136) 천주교 수원교구복음화국, 2016. 수원; 하상
 합당한 준비 능동적 참여 (p.136) 천주교 수원교구복음화국, 2016. 수원; 하상
<https://blog.naver.com/cswhite/220646280195> 자료검색일 2019. 5. 13)

를 보이지 않도록 감싸는 역할로 착용하고, 그 위에 발끝까지 내려오는 긴 백색의 옷인 장백의(Alba)를 착용한다. 영대(Stola)는 장백의 위에 걸쳐 내려뜨리는 좁은 긴 띠 형태이며, 장백의와 영대가 땅에 끌리지 않도록 허리에 띠(Cingulum)를 둘러 같이 고정한다. 마지막으로 제의(Casula)는 사제들의 전례복 중 가장 겉에 착용하며, 반원형이고 장백의를 거의 덮는 길이로 소매가 없이 앞뒤가 늘어지며 양옆이 터져 있는 형태로 사제들의 전례복의 기본 착장이 완성된다.

〈표 1〉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례복의 착용 순서를 번호로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2. 사제 신분에 따른 전례복

기본 착장 순서와 더불어 사제들의 제의 착용의 응용 사례를 분석하기 위한 정보로는 사제들의 지위에 따른 착용 구별이 있다.

사제들의 평상복인 수단의 경우에는 사제들의 지위에 따라 다른 색상을 착용한다. 〈표 1〉에서와 같이 일반사제들은 제의 착용 전 검은색 수단을 착용하였으나 교황은 흰색, 추기경은 진홍색 혹은 흑색에 진홍색 선을 두르고 단추와 단추 구멍을 진홍색으로 하고 주교는 자주색을 사용한다. 주교 이상은 수단 착용 시 띠를 두르며 교황

은 흰색, 추기경은 진홍색, 주교는 자주색의 띠를 두른다. 장백의보다 길이가 짧은 무릎길이의 중백의(Superpelliceum)는 사제가 되기 전 부제 신분의 신부가 수단 위에 착용한다. 이외에도 머리에 착용하는 모관(Zucchetto)은 교황과 대주교가 예식에서 착용하는 각이 진 형태가 있으며, 평소에는 둥근 형태의 베레모를 착용하는데 교황은 백색, 추기경은 홍색, 주교는 자색, 사제는 흑색의 구별을 가진다(박영순, 1990). 이외 교황과 대주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는, 교회와의 연대를 상징하는 깃털로 만들어진 팔리움(Pallium)과 지팡이 등이 있다(김명식, 1980).

3. 제의(祭衣)의 기원

위의 전례복 착장 순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의는 전례복의 가장 마지막에 착용하는데 이러한 제의의 착용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황제 시대 시민들 복장에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시민들의 외투와 같은 형태였으나 시민들의 복장이 변형되고 발전되는 동안 교회의 의상은 다양성을 추구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 고유한 성격의 제의가 되었다(서기욱, 1975). 제의가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착용된 것은 4세기경부터로 당시의 형태는 머리 중앙에 구멍을 뚫고 몸 전체를 감싸 두 팔이 보이

〈표 2〉 연중 전례 시기



〈표 3〉 전례 시기와 상징 문양

전례시기	대림	성탄	사순	부활
상징				

(그림출처 : 그리스도 상징들 (p66) (p68)(p75)(p72) 김종익, 2012. 서울 : 가톨릭)



〈그림1〉 김수환 추기경 문장

그림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03&aid=0002529306>
 그림출처 : <http://popekorea.catholic.or.kr/>
 그림출처 : 스승예수 제자 수녀회



〈그림2〉 프란치스코 교황문장



〈그림3〉 교황방문로고

지 않게 하거나 오른팔만 나오도록 입는 넓은 망토 형태의 외투였으나, 이후 13세기에서 16세기경까지는 편리성을 추구한 나머지 길이가 짧아지고 종모양의 우아함과 폭이 사라진 형태로 변화하였다. 16세기 말경부터 다시 제의의 길이가 길어지고 19세기 주교들의 전례규정과 상징주의의 일치로 인하여 다시 넓고 우아한 형태를 찾았다(김명식, 1980).

우리나라의 천주교 역사에서의 제의를 살펴봐도 초창기 프랑스 선교사를 통하여 들어온 제의들이 로마식 제의 형태로 지금의 형태에 비해 폭이 좁고 길이가 짧았던 것을 알 수 있다(오른대한국순교자박물관, 2015).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폭이 넓은 그리스식 제의 형태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제의에 의한 규정은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발표한 '미사 경본의 총 지침' 내용을 따르고 있다(김명식, 1980). 이외에 제의는 십자가를 놓고 둘레를 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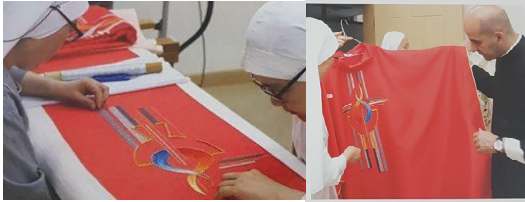
띠나 끈으로 장식하거나 꽃이나 다른 상징 무늬를 넣어 장식하며 특별한 환경과 지방 특색을 고려해 교회의 예식에 알맞은 의복임을 인정 하에 주교 및 사제들은 제의에 대한 축성을 하여 착용한다(서기옥, 1975).

Ⅲ. 제의의 문양 디자인

제의에 사용된 문양의 상징을 이해하기 위해 전례시기를 상징하는 문양과 제의 제작 단계에서의 문양 디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전례 시기와 상징 문양

전례란 교회가 성서나 성전에 의거하여 정식으로 공인한 의식으로 그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미사 이다(오른대한국순교자박물관, 2015).



〈그림4〉 교황 시복식 제의 문양

(출처: 스승예수의 제자수녀회)



〈그림5〉 교황 평화의 미사 제의 문양

(출처: 스승예수의 제자수녀회)

가톨릭의 전례 시기는 〈표 2〉와 같이 예수의 부활과 성탄을 중심으로 이 시기를 준비하는 시기인 사순 시기와 대림 시기가 있고 그 외의 기간을 전부 연중 시기라고 한다(안문기, 2007). 연중 시기는 특별한 구심점을 이루는 주제는 없는 시기이며 이 날에 해당하는 축일의 의미를 기리는 것으로 한다(최윤환, 1995).

〈표 3〉과 같이 대림의 상징물로는 빛과 생명의 승리를 상징하는 촛불과 생명과 공동체를 상징하는 푸른 나무, 성탄은 구유와 성탄나무, 베들레헴의 별이라고도 불리는 오각별, 'Ⅸ'와 그리스도를 표시하는 글자, 사순에는 잔, 빵, 밀, 포도와 수난을 상징하는 시기의 가시관, 못, 십자가, 못 세 개, 채찍, 주사위 등, 그 외 부활은 나비, 백합 등의 상징물들이 있다(김종익, 2012).

2. 상징 문양 제작

제의에 사용되는 문양은 가톨릭을 상징하는 문양 이외에도 가톨릭 성구(聖句)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상징과 맞는 단어를 그대로 쓰거나 성서 구절을 선택하여 의도하는 디자인 작품을 만들기도 한다(김종익, 2012). 가톨릭 종교들의 문장들도 이와 같은 형태로 제작하는데 〈그림 1〉의 고 김수환 추기경의 문장에도 방패, 삼각형, 별, 술 등의 상징과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라는 의미의 표어를 합쳐 문장을 제작하였으며 〈그림 2〉에서는 불타는 태양, 예수회의 상징, 예수십자가의 못, 별로 상징되는 마리아, 꽃으로 상징되는 성 요셉 등과 '자비로이 부르시니'의 표어를 합쳐 제작하였다. 〈그림 3〉의 교황방문로고의 상징은 '일어나 비추어라'의 문구를 바탕으로 남과 북의 화합, 파도를 상징화하여 제작된 바 있다.

〈그림 4〉와 〈그림 5〉는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 당시 제의 디자인을 담당 한 스승예수 수녀회의 제의 문양 디자인이며 〈사진 4〉시복식 교황의 제의 디자인에는 '일어나 비추어라'의 〈그림 3〉의 기본 로고를 십자가의 중간에 고난의 형틀의 상징을 넣어 순교의 의미를 더하는 로고 디자인의 수정과 변형이 이루어졌다. 〈그림 5〉의 문양의 상징은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와 올리브가지로 제작되었다. 이처럼 제의에 사용되는 문양의 디자인에는 가톨릭적 상징 문양과 행사 성격이나 의미를 더한 상징이 조합되어 독자적인 문양 디자인의 제작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IV. 상황에 따른 제의 착용과 상징

1. 전례 제의

전례복으로 착용하는 제의는 앞서 살펴본 제의의 기본 착장에 의한 순서로 착용하게 되며 형태, 색상, 문양의 상징 중 색상의 상징이 가장 비중 있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전례 시기의 성격에 해당하는 다음과 같은 연관성을 가지게 된다.

제의에서 사용되는 색상 중, 자색은 속죄와 회개, 붉은색은 성령과 순교를, 흰색은 기쁨과 영광을, 녹색은 희망을 상징한다(Inos Biffi, 2016).

대림 시기 제의의 색상은 자색을 착용한다(천주교 수원교구 복음화국, 2016).

성탄 제의의 색상은 예수 탄생의 기쁨을 상징하는 백색을 착용하며, 사순 시기 착용하는 제의의 색상은 자숙과 회개, 기다림을 상징하는 자색이다(오률태한국순교자박물관, 2015).



〈그림 6〉 서품식 입장시 사제들의 제의 착용 전 모습



〈그림 7〉 서품을 받은 후 사제들의 제의 착용 후 모습

(출처: 서울대교구 2009 사제서품식 가톨릭대학교 도서관 소장 디지털 자료)



〈그림 8〉 서품식. 서품제의 착용

(출처: 서울대교구 2009 사제서품식. 가톨릭대학교 도서관 소장 디지털 자료)
(출처 <http://www.koreatimes.com/article/1260815> 자료검색일: 2019. 8.15)



〈그림 9〉 서품식후 첫 미사

부활 시기는 그리스도의 새 탄생을 축하 하는 의미를 담아 기쁨을 상징하는 백색 제의를 착용하며, 연중시기에는 생명의 기쁨과 희망을 상징하는 녹색 제의를 착용하며, 〈표 2〉의 부활이 끝나는 시기에서 대림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연중시기 안에도 축일에는 백색 제의를 순교자 축일에는 홍색 제의를 착용한다(서기욱, 1785). 홍색 제의는 승의와 피를 상징하여 순교자 축일에 착용하며 장미색은 기쁨과 휴식을 상징하고 ‘즐거워하라’의 의미를 가진 사순 제 4주일과 ‘기뻐하라’의 의미를 가진 대림 제 3주일에 착용하게 되는 제의의 색상이다(안문기, 2007).

2. 사제서품(司祭敍品) 제의

사제 서품이란 사제로 불리움을 받은 자들을 교구장 주교의 안수와 축성의 가시적 표징의 부여 권한을 통해 사제로 축성하는 예식이다(이관홍, 2006).

가톨릭 사제들이 특별히 거룩함으로 불리움을 받는 이유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 때문 이외에도 성품 성사 즉, 사제서품을 통하여 특별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적 봉사에 불리움을 받았기 때문

이다(조규식, 1995).

사제들은 가톨릭 신학교 7년 과정을 마치고 사제품(司祭品)에 서임되는데, 사제서품 제의란 서품식을 통하여 부제의 신분에서 사제로서의 신분을 인정받으면서 사제들이 착용하게 되는 백색 제의를 말한다. 사제서품식에 입장하면서 아직 부제 신분의 사제들은 〈그림 6〉과 같이 제의 착용 전 장백의를 착용하고 영대를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허리 쪽으로 비스듬히 두른 채로 주교 앞으로 입장하고 주교의 축성이 끝나고 사제의 신분이 되면서 〈그림 7〉과 같이 첫 제의를 착용할 수 있다. 이 때의 서품식에서 착용하는 제의는 사제로서 착용하게 되는 첫 제의이기도 하며, 사제들 개인에게도 평생의 의미를 담은 제의가 되므로 개인적으로 상징하고 싶은 문양이나 마음에 담고 있는 성구(聖句)를 넣어 제작하여 착용하기도 한다(수녀회 인터뷰, 2019).

예식 중의 주교의 축성 기도문에서도 사제로서의 전례 집전의 의무와 봉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이로써 사제는 교회와 신앙인들을 있는 하늘의 대리자로서의 책무를 위임받게 되는 것이



〈그림 10〉 2006년 은경축



〈그림 11〉 추기경님의 은경축 축하



〈그림 12〉 금경축

(출처: 2006.3.18(토)은경축, 가톨릭 대학교 도서관 소장 디지털 자료)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432387>자료검색일: 2019. 7. 6)
 (청주교구 김병철신부 사제수품 금경축 축하식(2014.4.27.) 가톨릭신문(제2892호. 21면)

다. 또한 서품예식에서는 가톨릭 교회교리서 1567항에 의하여 주교는 사제를 협력자, 아들, 형제, 벗과 같은 존재로, 사제들은 주교를 사랑하고 순명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장신호, 2006). 이렇게 지위와 계급에 앞서 서로 돕고 사랑하라는 의미의 가톨릭적 의미는 〈그림 8〉과 같은 착장의 예에서도 그 의미를 더할 수 있는데 본당 주임 사제가 서품을 받은 사제로서 착용하는 첫 제의 착용을 도와주는 장면이다. 이 때에 본당 주임 사제는 예절용 장백의 위에 영대를 겹으로 늘어뜨린 약식 제의 차림으로 서품식의 주인공 사제들의 서품 첫 제의의 정식 기본 착장을 돕는 상징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제의 위에 영대를 착용하는 약식 제의 차림은 〈그림 9〉의 서품식 이후 첫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 옆의 보조 사제의 제의 착장에서 나타나는데, 가톨릭 전례의 예를 따르되 미사집전의 주(主)사제와 보조 사제를 파악할 수 있는 착장이다. 서기옥(1975)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가톨릭 관습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장백의 위에 미사제외와 같은 색상의 영대를 착용한다. 여기에서는 사제의 신분이나 계급과 상관없이 나타나는 가톨릭 규정을 따르는 것에 주목할 만하다.

3. 사제들의 기념 축일(祝日) 제의

한국 가톨릭 교회는 성요한 바오로 2세의 권고에 따라 예수 성심 대축일에 사제 성화의 날을 지내고 사제서품 25주년을 은경축이라 하여 축하하는 행사를 가진다. 그 외에 사제서품 50주년을 기념하며 금경축, 60주년을 기념하여 회경축이라 하여 축하하는 행사를 가진다.

〈그림 10〉은 사제들의 서품 후 25주년을 기념하는 ‘은경축’ 행사 입장시의 제의 착장 모습이다. 은경축을 축하받는 사제들은 백색 제의의 기본 착장 모습과 장백의 위에 영대를 드러운 약식 제의 착용이 혼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의 착용의 색상과 디자인에 따라 사제의 신분과 상황을 알 수 있는데, 〈그림 11〉진홍색 띠와 진홍색 베레모를 착용한 추기경과 자주색 띠와 자주색 베레모를 착용한 주교의 모습에서 신분과 역할에 따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앞서 이론적 고찰에서 전례복의 착용 순서에 대해 언급한 바 있으며, 일반적인 전례 시의 착장에서는 수단 위에 장백의를 입고 영대를 두른 후, 띠로 고정하여 마지막에 제의를 착용하였다. 그러나 〈그림 10〉에서와 같은 특별한 행사에서는 예절용 영대를 제의의 위에 늘어뜨려 약식 제의 착장도 확인할 수 있다. 김 운중(2000)의 연구에 따르면 미사를 집전하는 모든 사제들은 장백의, 영대, 제의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장백의와



〈그림 13〉 하관식
(1989년)



〈그림 14〉장례 미사 (2019년)

(출처: 사목반세기; 사제서품 50주년기념. 장금구 신부)

(출처: <https://blog.naver.com/veni55/221608854401> 자료검색일:2019. 8. 24)



〈그림 15〉 성유축성미사

(사진출처: <http://ujbhome.or.kr/archives/3368> 자료검색일: 2019. 8.28)

영대의 착용도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제들의 50주년의 금경축과 60주년의 회경축 행사를 교구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사는 사제 개인에게도 큰 기쁨과 감사함의 의미가 됨을 사제들이 직접 쓴 회고담(김정진, 2000)이나 기록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축하와 경축의 의미를 담은 행사이므로 백색의 제의를 착용하거나 〈그림 12〉와 같이 큰 행사의 의미를 담은 금색의 화려한 제의를 착용하기도 한다. 특히 나이가 많은 사제들의 경우는 돌아가시기 전의 제의를 준비하는 의미에서 새로운 제의에 의미를 담아 디자인하여 제작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문양의 의미는 가톨릭적 문양을 모티브로 개인적 의미를 담은 성구(聖句) 등을 조합하여 디자인 할 수 있다(수녀회 인터뷰, 2019).

4. 장례 미사



〈그림 16〉

장례 예식은 가톨릭에 규정된 장례예식서 10항을 통하여 고인과의 고별식에 시신을 발인하기 전이나 매장하기 전에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고인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예식을 의미한다(양지훈, 2017).

사제들은 장례 미사에서 제의를 착용하고 미사를 집전하는데 과거에는 애도와 슬픔의 의미를 담아 검은색 제의를 착용하였으나 최근에는 죽은 이들의 부활의 의미를 담아 백색의 제의를 주로 착용한다. 또한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장례예식의 전례색을 공식적으로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바꾼 것에 따르는 규정이지만 여기에서도 전통을 존중해 기존의 검은색 제의의 사용도 허용하고 있다(윤종식, 2006).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톨릭 신앙의 핵심이며, 그리스도를 통한 죽음의 의미를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죽음 자체를 슬픔이 아닌 긍정으로 재해석 하고 있기 때문이다(윤종식, 2013). 따라서 사제들의 제의의 색상도 부활의 기쁨을 상



〈그림 17〉 교황의 시복식미사와 평화와 화해의 미사

(좌: 교황제의, 가운데:주교제의, 우: 일반사제 영대)
 자료출처: 스승예수의 제자수녀회



〈그림18〉 교황 평화의 미사 제의 착용(좌: 교황제의, 우; 주교 제의)

자료출처: 스승예수의 제자수녀회

징하는 백색을 주로 착용하는 색상의 의미가 부각된다.

〈그림 13〉의 장례 미사의 우측 공동 집전에서도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의 모관과 지팡이, 팔리움의 착용을 통하여 주교로서의 사제 지위와 상황을 나타낸다. 대주교가 영대를 제의의 안쪽으로 착용한 기본 착용을 하였으며, 뒤쪽의 사제들은 영대를 제의의 위에 드러낸 약식 착용을 하고 있다.

5. 성유(聖油)축성 미사

주교가 교구사제단과 함께 공동으로 미사를 집전함으로써 주교와 사제의 일치를 드러내며 교구에서 사용할 성유를 축성하는 목적의 예식을 거행한다(성유축성미사, 2000). 축성 축하

의 의미를 담은 미사로 주교이하 교구의 일반 사제들이 함께 참석하고 일반인 신자들도 참석하여 미사에 참여할 수 있다.

축하의 의미를 담은 미사로 사제들의 제의 색상은 백색이며 〈그림 15〉에서도 기본 착용의 전례제의 모습과 〈그림 16〉에서와 같이 장백의 위에 영대를 겹으로 늘어뜨려 착용한 약식 제의 착용이 함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 교황 방한(訪韓) 미사

2014년 교황 방문의 해 스승예수제자 수녀회에서 〈그림 17〉 교황의 시복식의 홍색 제의와 〈그림 18〉명동 성당에서 거행된 평화와 화해의 백색 제의 착용 모습이다. 교황은 가톨릭



〈그림 19〉 서초동 성당 미사

(출처: 서초동 성당)



〈그림 20〉 순교자 현양대회 1996년

(출처: 모두하나기독교회사서, 천주교수원교구, 1998)

릭 로마 교황청에서 뽑힌 최고의 사제직으로 제의 착용에서도 신분의 상이점을 분석할 수 있다. 제의 위로 목과 어깨에 둘러 착용하는 좁은 고리 모양의 양털 띠인 팔리움(Pallium)을 착용하였는데 김명식(1980)은 팔리움을 교황의 영대로 표현하였다. 행사 입장과 퇴장 시 혹은 강복을 내릴 때 착용하는 모관(Zucchetto)을 착용하였다. 첫번째 사진의 교황 뒤편에는 진한 진달래색의 수단 위에 예절 증백의를 착용한 주교들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교황의 앞에 손을 모은 부제의 홍색 제의는 일반적 제의 길이와 다르게 증백의 길이처럼 짧은데 이것은 부제들의 예식복 달마티카(Dalmatica)의 착용이다(서기욱, 1985). 이런 경우에도 색상과 제의의 재료는 교황의 제의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의 착용의 종류와 색상에 의한 지위를 파악할 수 있다. 시복식 미사에 디자인된 홍색 제의의 문양 디자인도 좌의 교황의 문양에 비하여 주교의 문양이 간소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반사제들의 경우에 장백의 위에 같은 색상의 홍색 영대를 드리우는 약식 제의 차림이며 밖으로 드리우는 홍색 영대에는 제의에 사용한 문양을 통일하게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이와 같이 문양에 대한 상징 안에서 사제들의 신분과 역할에 따른 형태적 디자인 차이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7. 공동 집전(執典) 미사

여러 명의 사제들의 공동 집전 미사에서 주사제는 전례의 기본 착장으로 제의를 가장 곁에 입는 정식 제의 착용을 하고 미사를 보조하는 사제들은 장백의 위에 영대를 겹으로 늘어뜨리는 약식 제의 착용이 나타난다. 〈그림 19〉의 서초동 성당 공동 집전 미사에서는 가운데 주사제가 기본 전례 착용을 보이고 있고 양 옆의 보조 사제가 같은 연중시기의 녹색 영대를 장백의 위로 늘어뜨리는 약식 제의 착용을 보인다. 〈그림 20〉에서도 순교의 전례 의미를 담은 홍색 제의 착용을 주 사제가 하고 있고 보조 사제가 같은 색의 홍색 영대를 장백의 위로 늘어뜨린 약식 제의 착용을 통해 공동 집전의 사제의 역할과 신분을 파악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톨릭 사제들의 제의 착용의 의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사제들의 제의 착용에 함축된 의미가 형태, 색상, 문양의 측면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첫째, 사제들의 제의 착용에서 나타나는 형태적 의미로는 전례에서 기본 착장으로 사용되는 제의를 가장 곁에 착용하는 형태, 사제들의 신분과 역할을 드러내는 교황, 추기경, 주교,

일반 사제 등의 구별에 따른 차이를 가진 착장의 형태, 공동 집전이나 사제들이 참석하는 행사 등에서 장백의 위에 영대를 늘어뜨려 착용하는 약식 제의의 착장 형태 등이었다. 특히 제의를 가장 곁에 착용하는 기본 제의 착장과 영대를 장백의 위로 늘어뜨리는 약식 제의 착장을 통해서서는 전례 안에서 주(主)사제, 보조 사제 등의 사제 역할 파악이 가능하였다.

둘째, 사제들의 제의 착장에서 나타나는 색상의 의미로는 전례시기의 성격에 맞추어 사용하는 것으로 부활, 성탄의 백색과 대림, 사순의 자색, 그 외의 시기인 연중시기의 녹색, 이외에 순교의 축일에 사용하는 홍색,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인 장미색 등이었다. 전례 이외의 색상에 대한 의미로는 사제서품식에서 착용하는 사제들의 첫 제의나 경축의 의미를 담은 사제 참석의 행사 등에서는 백색의 제의 색상을 착용하였다. 특히 백색의 제의 착용은 경축의 의미 외에도 장례미사에서도 착용되는데 기존의 애도의 검은 색에서 죽음을 부활의 의미로 해석한 가톨릭적 의미의 상징이다.

셋째, 사제들의 제의 착장에서 나타나는 문양의 의미로는 전례 시기를 상징하는 가톨릭적 문양의 상징물들을 이해하였고 제작단계에서 다양한 성구나 가톨릭적 상징물들의 조합을 통해 로고의 변형과 수정이 이루어지는 제작 과정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교황 방한 기념 미사를 위해 제작된 문양 디자인의 제작과정에서는 교황, 추기경, 주교 등의 신분에 따라 간소화된 문양 디자인의 차이를 통해 문양의 상징에서도 형태적 상징이 포함된 신분의 차이가 나타나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런가 하면 신분에 따른 제의의 착장에서도 일반 사제와 다르게 추기경 주교의 수단은 색상의 상징에서도 나타나지만 수단 위에 띠를 두르는 형태적 상징도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제들의 제의 착장을 통하여 나타난 의미는 형태, 색상, 문양의 측면으로 각각 구분할 수 있었으며, 가톨릭의 복합적 상징이 제의의 착장에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사제들의 제의 착용을 통해 가톨릭의 전례나 행사, 제의에 내재된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유

럽의 가톨릭 전통 국가에 버금가는 한국적 가톨릭의 깊이를 더하는 발전된 연구들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가톨릭신문. (2014. 4. 27). 청주교구 김병철신부 사제수품 금경축 축하식. 자료검색일 2019. 7. 4, 자료출처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260841
- Goldbrunner, Josef (1964). *교사용 가톨릭 교리*. 서울: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 김광경. 전정미. 남미우. (1999). 관찰자의 종교와 가치관이 가톨릭 사제복의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11), 59-73.
- 김남수(1998). *모두 하나가 되게 하소서; 김남수 안젤로 주교님 사제서품 50주년 회고록*. 수원: 천주교 수원교구.
- 김명식. (1980). *가톨릭교회의 전례복에 대한 역사적 고찰*. 가톨릭대학교 학사학위논문.
- 김운중(2000). *전례복의 상징적 의미와 기원*. 가톨릭대학교 학사학위논문.
- 김정진. (2000). 50년간 사제생활의 회고담; 나의 사제 생활의 신념과 지침의 이모저모. *사목연구*, 8, 285-292.
- 김정희. (1981). *한국 가톨릭 복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장식미술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종익. (2012). *그리스도교의 상징들*. 서울: 가톨릭.
- 김지훈. (2018). 「성품성사예식」을 통해 바라본 사제 정체성에 대한 고찰; 사제 서품예식을 중심으로. 대전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희선. (1993). 현재 우리나라 가톨릭 사제복에 나타난 상징성 연구. *복식문화연구회지*, 1(1), 69-80.
- 남정률. (2006. 3. 26). 가톨릭대 정의철, 구요비, 최기섭, 정구현, 박일 신부 합동 은경축. *가톨릭 평화신문*. 자료검색일 2019. 00.00, 자료출처 http://www.cpbcc.co.kr/CMS/newspaper/view_body.php?fid=1437&cat=&cid=185368&path=200603
- 박영순. (1990). *한국 가톨릭교 전례복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정일. (2001). *2002년 전례력*. 서울 :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 박종인. (2016). *교회상식 속풀이*. 서울: 바오로딸.
- 박준성. (2017. 6. 24).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제 31명은경축 축하미사 봉헌. *천지일보* 자료검색일 2019. 7. 4, 자료출처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dxno=432387>
- 베니. (2019. 8. 7). 대구교님 사제들 공동집전 장례미사. 자료검색일 2019. 8. 8, 자료출처 <https://blog.naver.com/veni55/221608854401>
- 서기옥. (1975). *제의에 관한 소고*. 가톨릭대학교 학사학위논문.
- 손희승. (2008). *미사 마음의 문을 열다*. 서울: 생활성서사.
- 스승예수의 제자수녀회. (2003). 자료검색일 2019. 6. 2, 자료출처 <http://www.pddm.or.kr/>
- 안문기. (2007). *은혜로운 계절 축제*. 서울: 가톨릭.
- 안성노. (1985). *전례복과 상징*. 가톨릭대학교 학사학위논문.
- 양리나. (1994). 카톨릭교 전례복에 관한 연구-독일 Paderborn과 Keverlaer 의 전례복 회사를 중심으로-. *자연과학논문집*, 7, 133-162.
- 윤종식. (2013). 천주교의 죽음에 대한 이해와 장례예식에 대한 고찰, 그리고 사목적 모색. *한국가톨릭신학학회지*, 23, 1-38.
- 오른대한국순교자박물관. (2015). *제의 영원한 사랑 순결한 옷*. 부산: 순교의 맥.
- 이관홍. (2006). *성품성사 예식서에 나타난 주교, 사제, 부제의 직무와 영성*.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성운. (2008). *가톨릭 교리 요약 교리문답*. 서울: 기쁜소식.
- 이지훈. (2019. 7. 30). 이찬 토마스아퀴나스 첫미사 집전. *한국일보* 자료검색일 2019. 8. 15, 자료출처 <http://www.koreatimes.com/article/1260815>
- 장신호. (2006). 사제서품 예식에 나타난 사제의 관계성. *가톨릭 사상*, 35, 187-240.
- 정의철. (1997). *전례봉사*. 서울: 생활 성서.
- 천주교 대구대교구. (2017). *천주교 용어집*(개정증보판). 서울: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 천주교 대구대교구. (2000). *성유축성미사*. 대구: 주교회의 천주교용어위원회
- 천주교 수원교구 복음화국. (2016). *합당한 준비 능동적 참여*. 수원: 하상.
- 최윤환. (1995). *전례와 선포*. 화성: 수원가톨릭대학교출판부.
- 한경애. (1990). *가톨릭교 전례복에 관한 연구: 전례복 증 제의의 형태, 문양, 기법을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Dalmais, I. H. (1996). *전례주년*. 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 Inos Buffi. (2013). *미사의 역사*. 서울: 가톨릭.
- Lameri, A. (2017). *전례적 표징과 예식 그리고 신비-전례의 소통적 측면*. 인천: 가톨릭대학교출판부.
- Plazidus, B. (1980). *전례주년과 빠스카 신비*. 칠곡: 분도.
- Richard, W. C. (2017). *종교의 이해: 종교의 방법론과 원시종교 연구*. 서울: 지식과 교양